



Pattern Energy, 칠레 광업회사와 풍력프로젝트에 대한 20년 PPA 계약 체결

Pattern Energy Group은 지난 11월 28일에 칠레 광업회사와 115MW급 El Arrayan 풍력 프로젝트의 발전에 대한 20년 PPA 계약을 체결했다. 금속광업회사인 Minera los Pelambres도 풍력 프로젝트의 30% 지분 획득 선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El Arrayan은 칠레에서 가장 큰 풍력단지가 될 것이며, 칠레 북부해안을 따라 산티아고 북쪽 250여 마일에 위치할 예정이다. Pattern은 이 프로젝트가 칠레 최대 풍력자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칠레가 매우 매력적인 전력시장과 전력수요 성장률을 보유한 투자가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칠레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칠레가 비전통적인 신재생전원으로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Pattern이 칠레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El Arrayan 프로젝트는 2012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하반기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iemens가 2.3MW급 풍력터빈을 제공할 것이며, Skanska가 프로젝트 건설을 담당할 것이다. Pattern은 풍력 터빈 및 관련 송전선에 필요한 부지임대를 확보했다.



PV FIT, 2012년 15% 삭감

독일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신규 태양광 PV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15% 삭감했다. 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기간이 2011년 9월까지 12개월 간 태양광 PV 용량 추가는 총 5,200MW로 이전 12개월 동안의 7,800MW와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독일 송전 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10월 14일 추정에 따르면, 총 태양광 PV 용량은 2011년 말까지 23.8GW에 도달할 것이며, PV 용량이 거의 두 배가 되었던 해인 2010년 말에 등록된 17.3GW에서 6.5GW 상승한 것이다.



태양광 PV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독일에서 총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의 거의 50%를 흡수하고 있다. 2010년 독일 정부는 EEG 신재생에너지 지원 법안에 대한 수정을 빨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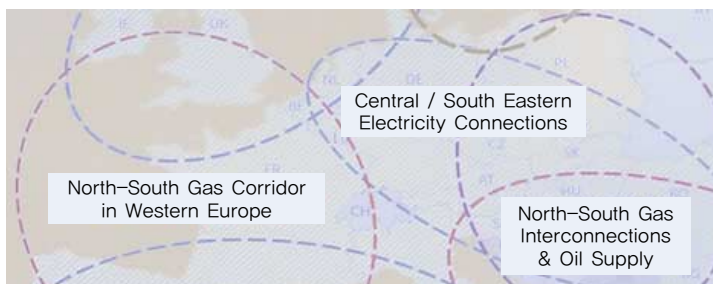


으로써 PV 붐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PV 전력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간 9%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연간 감소율은 커지는 시장 규모의 상관관계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갈수록 더 많이 삭감될 전망이다.

'Connecting Europe' 시작되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연결(connecting Europe) 패키지'의 일환으로, 우선 EU 전력과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초안 규칙을 제안하였다.

규칙은 각국의 정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EU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허가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책임을 단일 국가 당국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은 10월 19일 EC가 발표한 초안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당 3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과정은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해 최대 2년으로 나뉜다. 이것은 개발자가 국가 당국에 프로젝트를 통지하고 당국이 필요한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당국은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최대 1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제안은 12개의 전략적 유럽 횡단 에너지 인프라 통로와 지역을 확정하고 있으며, 4개의 전력 통로, 4개의 가스 통로, 1개의 석유 통로 그리고 3개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EC는 지역 전문가 단체의 추천과 EU 에너지규제기관 ACER의 조언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이다. 목록은 2년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목록에는 북해의 풍력 단지를 연결하는 해상 망, 전력 저장 프로젝트 그리고 카스피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가스를 가져오기 위한 신규 가스 통로와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동시에 위원회는 2014년과 2020년 사이 에너지,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에 투자위한 4백억 유로의 유럽 설비 연결(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계획하고 있다. EC가 지난 6월 30일 2014~2020년 다중 연간 예산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처음 제기되었다.

설비는 교통을 위한 2백17억 유로와 디지털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위한 92억 유로, 더불어 에너지 인프라를 위해 책정된 91억 유로를 포함한다. 교통 프로젝트는 EU의 결속기금(Cohesion Fund)에서 나온 10억 유로를 더 받게 된다.



초안 규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가스 및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 조화롭고, 전 조직에 걸치는 비용 편익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목표는 국가 규제기관과 ACER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에 대해 적절하게 국가 간 프로젝트 비용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의 27개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 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법제화되기 전에 EC의 초안 규칙의 공동 문서를 토론하고 동의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새로운 2014~2020년 예산에서 동의되어야 한다.

EC의 우선 전력 통로

- 북해 해상 망(NSOG) : 신재생 해상 에너지원에서 나온 전력을 소비와 저장 센터로 수송하고, 국가 간 전력 교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북해, 아이리쉬해(Irish Sea), 영국해협, 발트해(Baltic Sea) 그리고 근해의 통합 해상 전력망 구축. 관여하는 회원국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 서유럽의 남부-북부 전력 연계접속(NSI West Electricity) : 특히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나온 전력을 통합하기 위한 지역 회원국과 지중해 제3국 간의 연계 접속 프로젝트. 관여하는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몰타,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중동부 및 남동부 유럽의 남부-북부 전력 연계접속(NSI East Electricity) : 내부 시장을 충족시키고 신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온 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남북 그리고 동서 방향의 연계접속 및 내부 라인 구축. 관여하는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사이프러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전력에서의 발트 에너지 시장 연계접속 계획(BEMIP Electricity) : 발트해 국가의 고립을 종식하고 지역의 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발트 지역 회원국 간의 연계접속 그리고 이에 따른 내부 망 인프라 강화가 목적이다. 관여하는 회원국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우선 주제 지역

- 스마트그리드 구축 : 전력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들의 특성과 활동, 특히 신재생에너지 또는 배전된 에너지원에서 나온 대량의 전력 발전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수요 반응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스마트그리드 기술의 채택.
- 전력 고속도로 :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전력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첫 번째 전력 고속도로 구축.
- 국가 간 이산화탄소 네트워크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구축을 고려하여 회원국 간 그리고 이웃 제3국과 함께 이산화탄소 수송 인프라 개발. KEA